

2026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4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함

성경: 살전 2:12, 빌 3:13-14, 롬 8:4, 엡 4:1-4, 15-16, 20-24, 5:2, 8, 18

-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써,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 — 살전 2:12.
- A.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믿는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 엡 4:1, 17, 5:1-2, 8, 고후 5:7, 요일 1:7, 2:6, 빌 1:20-21 상.
1.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한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 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 고전 10:31.
  2.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요소와 그분의 실질과 그분의 본성의 성분들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 딤후 1:4, 엡 3:16-19, 빌 1:20-21 상.
  3.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가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외적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는 것이다 — 창 1:26, 2:9.
  4.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법에 의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실 것이며, 우리는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을 살고,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단체적인 한 실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을 살 것이다 — 롬 8:2, 6, 10-11, 29, 엡 4:4-6.
  5. 하나님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하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다 — 고전 10:31, 골 3:17.
- B.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따라 살고 움직이고 처신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롬 8:4, 갈 5:16, 25.
1. 생명의 감각에 순종하는 것과 기쁨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한 가지의 세 방면이다 — 롬 8:4,6, 요일 2:27.
  2.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은 그 지위와 기능을 잃게 된다 — 갈 5:16, 마 16:24, 고전 2:11-15.
  3.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입지를 얻으셔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 — 엡 3:16-21.
  4.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소나기’ 아래 지켜진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곧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 겔 34:26, 롬 8:4, 11.
  5.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실 때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게 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단체적인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엡 3:16-21, 4:4-6, 16, 골 1:27, 2:19, 3:4, 10-11, 계 21:2, 10-11.

- II.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선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 엡 4:1-4.**
- A.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 — 엡 4:2-4.
-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추구하고 얻는 단체적인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로서,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 왕국 시대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하시고 점령하시며 다스리시게 한다 — 빌 1:19-21 상, 3:10-14, 갈 2:20, 계 19:7-9, 20:6.
  -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자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말했다 — 엡 3:1, 4:1.
    - 하나님의 모든 청지기, 하나님의 풍성을 공급하는 모든 사역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든 연인들은 조만간 그리스도에 의해 갇힐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힐 것이다. 그분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안에 있게 되며, 결국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극도로 누리도록 우리의 감옥이 되실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 우리는 자유를 가질수록 더 눈멀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옥이 되신다면 우리의 눈은 열려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최고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 엡 3:9, 행 26:19.
  -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인성이 있다. 한 몸을 위해 한 영을 마시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 사람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게 하는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의, 신성으로 풍성하게 된 인간 미덕들을 가진 예수님의 인성을 마시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다 — 요 7:37-39 상, 고전 12:13, 행 16:7, 엡 4:2-3.
- B.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둘째 항목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 엡 4:15-16.
-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새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적인 대체물로서 누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보아야 한다 — 엡 4:15-16, 막 9:7-8.
    - 하나님은 왕궁의 청지기였던 썬나를 해고하셨고(사 22:15-19), 그리스도의 예표(사 22:20-24, 계 3:7)인 엘리야김으로 대체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의 모든 그릇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시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셨다(사 22:25).
    -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셨다 — 막 1:1-8, 마 17:3-5, 골 2:16-17, 히 10:5-10, 11:5-6, 비교 사 22:20-25.
    -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고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종(種),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걸작품인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재고용하시어’,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우리를 되돌리셨다 — 창 1:26, 고전 11:7 상, 갈 2:20, 엡 2:6, 10, 15, 사 43:7.
    - 참된 교회 생활은 모든 지체들이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체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 골 3:10-11, 고전 10:31.
  -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접붙여진 생명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이러한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체하신다. 대체는 연결을 요구하는 반면, 교환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요 15:4-5)을 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결합시키시고 우리와 연결시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종결되었다(롬 11:17, 24, 6:6).
  -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해 사심으로 우리를 대체하신다.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 갈 2:20, 빌 1:19-21 상.

- C.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셋째 항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이다 — 엡 4:20-24.
1. 요한복음 6장 57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의 복사판인 새사람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이 되는가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주 예수님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그분과 정확히 똑같은 우주적이며 위대한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산출한다.
  2. 요한복음 6장 57절은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이며,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3.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공급 요인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공급하고 힘을 주는 요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신다 — 요 6:63, 롬 15:16, 롬 8:2, 12:1-2.
- D.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넷째 항목은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엡 5:2, 8.
1.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 곧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후 1:4).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한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사랑이시며(요일 4:8, 16), 빛이시다(1:5). 영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2.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내밀하게 교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 요 4:24, 눅 15:20, 마 5:15-16.
- E.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리스도를 넘쳐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 엡 5:18.
1.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영 안에 충만한 것의 흘러 나감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길이다 — 엡 5:19-21.
  2.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넘쳐흐름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받아들여 그분의 충만, 그분의 넘쳐흐름이 될 수 있다 — 엡 3:8, 1:23, 3:19 하, 롬 10:12-13, 엡 6:17-18, 요 1:16.
  3. 우리는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신부가 되고 원수를 패배시키는 그분의 전사가 될 것이다 — 엡 5:18, 25-27, 6:10, 17-18.